

종합

“광주·전남 독립유공자 추모탑 건립방안 검토”

강운태 시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8일 “광주·전남 독립유공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독립유공자 추모탑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민과 대화에서 광복회 광주·전남연합회 회원들의 추모탑 건립 제안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15~20m 규모의 독립유공자탑을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추모탑 건립 부지로 광주공원과 월산공원, 발산공원, 학동공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날 시민의 대화에서 강 시장은 전대 전남대 명예교수가 제안한 광주와 전남·북의 음식문화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식품종합관 설치, 드림광 관광자원화 등에 대해 관련 실과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외교통상장관 김성환씨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후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내정자를 공식 임명했다.

앞서 국회는 7일 인사 청문회를 열어 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한 뒤 이날 오전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울 출신인 김 내정자는 1977년 외무고시 10회로 외교부에 입부해 북미국장, 기획관리실장, 주(駐)오스트리아 대사, 외교부 2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 외교관으로, 지난 2년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다.

김 내정자의 장관직 이動으로 공석이 된 외교안보수석 후임에는 김승 국가정보원 1차관, 천영우 외교부 2차관, 김성환 고려대 교수, 김우상 주(駐)호주 대사,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재오 특임장관 실장에

김기룡 前전남도당 위장



특임장관실(장관 이재오)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특임실장에 김기룡 前전남도당 위원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순천 출신인 김 신임 특임실장은 지난 1997년 한나라당 순천지구당 청년위원장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순천당원협의회 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소탈한 성품에 현장 감각과 정무적 판단능력, 다양한 대인관계와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오 장관이 “장·차관이 영남 출신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특임실장은 호남 출신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사람을 뽑자”고 강조해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 출신 후보자를 물색하던 중 김 실장을 낙점했다는 후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대강 주민 기생충 감염률 광양 최고

간흡충이 90% ... 수질개선 등 대책마련 시급

질병관리본부 국감 자료

4대강 유역 중 광양지역 주민들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감염된 셈으로 수질개선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8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4대강 유역 주민 2만 6004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3412명(13.1%)에게서 기생충이 검출됐다.

또 검출된 3412명 중 3102명(90.9%)은 간흡충(간디스토마)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내 기생충 중 하나인 간흡충은 지난 2005년 국립안테라에서 간과 담관의 원발성 암 위험요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간흡충에 감염된 민물고기를 날로 섭취하는 식습관과 오염된 강물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영산강 주변의 광양시 주민이 46.1%(896건 중 413건)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남원 31.1%, 곡성 17.0%, 순천 14.7%, 무주 12.7%, 무안 12.1%,

보성 11.3%, 나주 9.0% 순으로 집계됐다.

낙동강 유역의 경우 경남 거창군 23.5%, 합천군 21.1%, 진주시 19.7%로 나타났으며, 금강 유역은 충북 영동군이 23.5%, 금산군 19.3%로 조사됐다. 간흡충(간디스토마) 감염률은 광양이 45.8%, 남원 29.3%, 영동 22.0%, 거창 21.8% 순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기생충 감염은 일반인이 인지하기가 어렵지만 장내에서 각종 대사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간흡충의 경우 간과 담관에 암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포 'DJ추모 어록전' 개막

8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어록전' 목포전에서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정중득 목포시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사와 김대중 평화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어록전은 고(故) 김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13일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37명의 서예가들이 김 전 대통령의 주옥같은 글귀들을 예술작품으로 형상화 한 180점을 선보인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ee@kwangju.co.kr

전남 올 쌀 생산량 7.5% 감소 전망

재배면적 줄어 84만4528t 그쳐 ... 전국도 434만t 1980년래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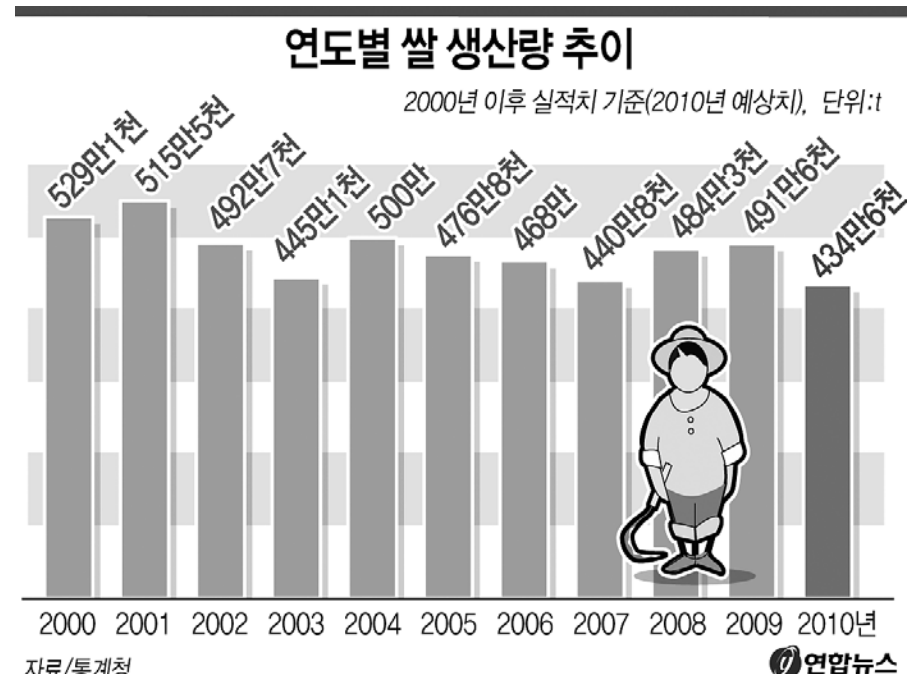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 추세에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적으로도 1980년 이후 최저치인 434만대로 격감할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84만4528t으로 지난해(91만3092t)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관측됐다. 재배면적은 18만3804ha로 휴경면적 증가, 산지 쌀값 하락, 지방자치단체의 타작물 재배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18만7533ha)보다 2.0% 줄어 들었다.

단위 면적(10a)당 예상 수량은 논벼가 465kg으로 5.5%, 밭벼가 256kg으로 3.0% 각각 감소했다. 1㎡당 포기수(21.1→21.0개), 포기당 이삭수(18.4→18.1개), 이삭당 낱알수(73.4→69.3개) 등도 모두 감소했다.

광주지역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2만9091t으로 지난해 생산량(3만1891t)보다 8.8%가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6233ha로 지난해(6581ha)보다 5.4% 줄어 들었다.

전국적으로는 6808개 표본구역 조사 결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434만6000t으로 작년(491만6000t)보다 57만t(11.6%) 줄고, 평년(445만5000t)보다 10만9000t(2.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450만t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2007년(440만8000t) 이후 처음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시설

KTX發 ‘수도권 블랙홀’ 대책 서둘러야

지난해 말 대구경북연구원이 조사한 'KTX 개통이 대구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KTX 경부선 개통 후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주요 점차 도시의 관광·학술행사, 문화예술 행사, 교육, 유통 등 6개 분야 서비스 이용 증가 비율 가운데 서울이 최소 48.1%에서 최대 82.6%까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82.6%), 교육(81.9%), 유통(79.6%) 부문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부산은 관광에서 33.2%, 대전은 문화예술행사에서 9.1% 증가했을 뿐이다.

이는 KTX가 전국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재편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TX발 수도권 블랙홀'이 현실화되고 있음

을 입증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KTX 이용객 215명과 KTX 역인 동대구역세권 입지 102개 업체, 서울 소재 의료기관 102곳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객관성과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KTX발 블랙홀'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이 완공되는 오는 2012년이면 광주~서울 간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1시간11분 밖에 안 된다. 광주에서 수도권까지 출·퇴근도 가능한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호남고속철은 지역발전의 약(藥)이 될 수도,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치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KTX는 지역 인력과 자본의 빨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KTX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수단(發) 수도권 블랙홀이 현실화되고 있

전남대 교수 20% 논문 한 편도 안쓴다니

먼저 전남대 교수들에게 묻고 싶다. 논문을 쓰지 않는 교수로서 과연 학자의 양심이나 자격을 논할 수 있는가. 전남대 교수 10명 중 2명 이상이 1년간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았고, 교수 10명 가운데 3명은 전문학술지에 논문 한 편도 게재하지 않았다고 하니 말이다. 학부 모 입장에서 보면 실망과 격정이 앞설 뿐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분석한 지난 2008년 주요 국립대 교수 논문 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남대는 교수 1160명 가운데 20.7%인 240명이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은 비율도 29.0%에 달해 10명 중 3명꼴로 학술지와 탐을 쌓은 셈이다.

전문학술지 게재 건수는 933편으로 1인당 평균 1건에도 못 미친 0.80건에 불과하다. 또 국내 일반 학술지조차 논문 미게재율이 27.4%나 된다고 한다. 이는 부산대, 충북대 등 거점 11개 국립대의 저술 미실적 평균 비율이 21.4%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높은 수치다.

논문 발표나 게재 건수는 대학의 경쟁력과 함께 교수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 교수가 많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 공부하도록 하지 않는,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 외국이나 국내 유수의 명문 대학들은 교수들의 논문 발표 건수를 정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감히 퇴출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 그럼에도 전남대의 대안이라는 것이 3년간 연구실적 없는 교수들에게 연구성과금을 삭감한다는 게 전부라니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이다. 공부하지 않는 대학이라면 삼류대학은 멀지 않다.

과하다. 또 국내 일반 학술지조차 논문 미게재율이 27.4%나 된다고 한다. 이는 부산대, 충북대 등 거점 11개 국립대의 저술 미실적 평균 비율이 21.4%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높은 수치다.

논문 발표나 게재 건수는 대학의 경쟁력과 함께 교수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 교수가 많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 공부하도록 하지 않는,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 외국이나 국내 유수의 명문 대학들은 교수들의 논문 발표 건수를 정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감히 퇴출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 그럼에도 전남대의 대안이라는 것이 3년간 연구실적 없는 교수들에게 연구성과금을 삭감한다는 게 전부라니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이다. 공부하지 않는 대학이라면 삼류대학은 멀지 않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총리 표창

전통 보존하고 친환경 에너지 갖춰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이 8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은 한옥형장옥 건축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친환경인증 특산물판매장 운영, 5일시장의 상설화 추진 등으로 타 시장과의 차별화를 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장주어, 상인대학 운영, 공동마케팅 등 경영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왔다. 9일 열리는 '2010년 전통시장 비전 콘퍼런스'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로 발표된다.

전남도는 이번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표창으로 2008년 장흥도요시장, 2009년 목포자유시장 등 3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과세액 이의신청 인용율

광주지방국세청 전국 최고

광주지방국세청의 과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8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처리한 이의신청 69건 가운데 27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이 3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전체 146건 가운데 42건이 인용돼 28.8%의 인용률을 보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39.1%로 급격히 높

아졌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의신청 전 단계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의 인용률도 3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부정확한 과세가 많았음을 반증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금액 인용률도 지난해 2.4%에서 올해 상반기 18.2%로 크게 증가했다.

각 지방청별 이의신청 인용률은 광주에 이어 중부 28.8%, 대구 27.8%, 대전 27.0%, 서울 26.8%, 부산 24.2% 등의 순으로 전국 평균 27.8%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조세의 정확한 부과와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중하고 정확한 부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details for the newspaper.

빛의만평

- 김중두



다들 궁금해 죽을 지경 ...

지역구분 모집 행정고시 취지무색

광주·전남 합격자 4분의 1 '서울로'

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지방고시 포함)으로 임용된 광주·전남 공무원 4명 중 1명이 중앙정부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지역)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지난 8월 말 현재 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 562명 중 161명(29%)이 임용 지역을 벗어나 중앙부처로 옮겨간 바 파견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전남에서는 40명의 임용 공무원 중 14명(35%)이 중앙부처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자리를 옮겼다. 광주는 24명 중 4명(16.7%)이 중앙정부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근무한 지 평균 2년 8개월 만에 중앙부처로 옮긴 것으로 나타나 초임지 근무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 전남의 평균 근무일수는 4년 5개월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지방고시 포함)제도를 도입한 만큼 애초 취지에 어긋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와 지역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및 지방의 고위 공무원 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중앙부처로 진출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대로라면 애초 자리도 없는 지방 고급공무원 숫자만 늘린 셈 아니냐”면서 “중부한 공직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서도 제도 시행 취지를 살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